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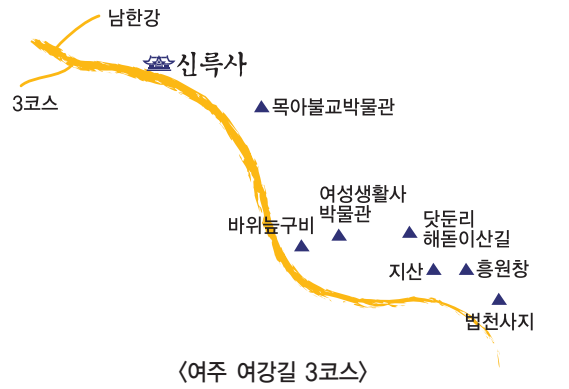
나용선사의 다비를 했던 곳으로 전해지는 신록사 3층석탑과 강월정. 강월정에 서면 남한강 지류가 한눈에 보인다.



눈 덮인 여강길 3코스의 길 모습



독특한 불교 조각물을 만날 수 있는 목야박물관



(여주 여강길 3코스)

강 따라 걷다보니 나용 선사 떠나간 길

강을 따라 걷는 사찰길 여주 여강길 3코스

김소월의 동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서 금 모래 반짝이는 강변이 여강이라는 설이 있을만큼 여강의 모래는 굵고 눈부시다.

여강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발원해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남한강 지류로 여주를 지나 38.9km의 강줄기를 말한다. 한반도의 중앙을 흐르는 남한강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충청·강원은 물론 영남지방에서 거둬들인 세곡을 실어 나르고, 한양으로 가는 길손들이 지나가는 수운의 핵심이었다.

이 물길을 따라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여강길'은 2009년 국토해양부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하는 등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여강길은 걷치거나 되돌아오는 구간이 없어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과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긴 거리를 하루만에 도보로 소화하기는 무리. 대부분이 여주 신록사부터 시작하는 3코스 '바위늪구비길' (22.2km/ 약 7시간 소요)과 그 맞은편 강변을 따라 걷는 1코스 '옛나루터길' (15.4km/ 약 6시간 소요)을 찾는다.

조선 수운의 중심지 여강

'바위늪구비길'은 여강길 3개 코스 중 가장 백미

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는 4대강 공사로 인해 강변을 따라 걷는 길의 절반 가량이 막혀있는 상태.

2코스와 이어지는 흥원장에서 신록사까지 여정을 시작했다. 도보로 강변길을 걸을 수 없는 경우 국도로 진행하면 된다.

흥원장은 고려시대 13개 조창 중 하나로 조운체제의 정비로 거둬들인 세곡을 임시로 저장하고 운반하던 곳이다.

조선시대 당시 흥원장에는 쌀 200석을 적재할 수 있는 배가 21척이나 배치됐다고 한다. 충주의 가흥창과 더불어 남한강의 중요한 창으로 주로 평창이나 정선, 횡성, 원주와 같은 강원도 영서내륙지방의 전세(田稅)가 모이던 곳이었다.

흥원장 앞에는 자산이 보인다. 눈으로 덮여 하얀 실산이 된 산이 마치 쌀을 수없이 많이 쌓은 쌀무더기로 보인다.

남한강의 백미로 꼽히는 자산(紫山)이다. 신선이 사는 곳은 자운동천(紫雲洞)으로 불리는데 경치가 좋아 신성시해 자산이라 부르게 됐다.

자산과 흥원장 인근에는 사적 제466호인 법천사지(法泉寺址)가 있다. 법천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고려시대에 융성한 사찰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

됐으나 중창되지 못했다. 권람, 한명회, 강효문, 서거정 등이 모여 시를 읊었다고 전한다.

공사로 끊긴 길, 우회로 찾은 불교박물관

여강길에는 나루터가 열두 군데가 있다. 거기에 경관 또한 수려해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정자가 십여 동이나 남아있다. 고려시대부터 이규보·이색을 비롯한 많은 시인묵객들이 머물렀고, 당대 내로라하는 문사 중 이곳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눈이 많이 쌓였지만 그 수려한 풍광을 느낄 수 있었다.

자산을 바라보며 강을 따라 강천면으로 조금만 더 걸으면 닷둔리 해돋이산길이 나온다. 이 길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걸었던 길이다.

길을 걷다보니 어느덧 강천마을회관에 도착했다. 여기서 신록사 앞의 이호대교까지의 강변길은 막혀 우회할 수 밖에 없다.

눈이 많이 내려 걷기조차 힘들지만 주변 경치가 다소 위트가 된다. 결국 자동차로 이동했다. 본 구간대로 걸으면 이무기가 산다는 전설을 간직한 '바위늪구비'와 2001년 천연염색이민정체가 30년간 수집한 여성생활과 관련된 유물 3000여점을 모아 설립한 '여성생활사박물관', 농촌체험마을인 '오감도토리마을'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이동하니 동양 최초의 불교박물관인 '목

야불교박물관'이 지친 길손을 맞이한다. 목야박물관은 중요무형문화제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지정된 목야 박찬수 관장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으로 문화와 예술로서의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야외전시장 곳곳에서는 현대적인 표현요소들을 접목시킨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장식된 보살상들은 불교를 넘어 어느 조각예술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신록으로 용마를 제압한 신록사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여주의 대표적 사찰인 신록사(神勒寺)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강가에 위치한 사찰로, 여주만 지명이 신록사와 마암으로 유래된 것으로 치수와 관련이 있는 유명한 곳이다. 여주를 대표하는 사찰 신록사는 뜰 앞으로 여강 물길이 흘러가고 있어 여러 물굽이 중에서도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신록사 주변은 현재 진입로 개설 공사가 한창으로 산사의 고요함보다는 다소 분주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경내로 들어오면 흐르는 강물과 함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신록사에는 수많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고려 우왕때 여주 마암(馬岩)에 용마가 나타났다. 그 용마는 사나워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었는데 이때 인당대사가 신력으로

고삐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다고 한다. 그 신력과 제압의 뜻을 합쳐 신록사라고 했다.

고려 때는 나용 선사가 병이 깊었음에도 왕명을 받아 밀양 땅으로 가던 중 열반했다는 곳이기도 하며 나용 선사가 보인 갖가지 이적 설화도 전해진다. 그로 인해 신록사는 대찰로 면모를 갖추게 되고 조선시대에는 세종의 능이 여주로 이장되며 왕실의 원찰로 크게 중창된다.

유서 깊은 천년고찰답게 신록사엔 나라의 보물이 여러 점 있다. 그중 독특한 재질의 탑이 단연 돋보인다. 여느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우아하게 다듬은 조선 전기의 다층석탑(보물 제225호), 그리고 벽돌을 쌓아 세운 고려시대 전탑인 다층전탑(보물 제226호)이 그것이다.

또 절 앞의 풍광 좋은 강변엔 아담한 삼층석탑과 강월헌(江月軒)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삼층석탑은 자연석 바위를 기반으로 삼았는데, 이곳에서 나용선사의 다비를 했던 곳이라고 한다. 삼층석탑도 정자도 모두 지정된 보물은 아니지만, 여강과 어우러진 소박한 풍경은 그 자체가 '보물'이다.

길을 걷고 풍경을 살피다 보니 어느새 여주 강가에는 아들이 물러왔다. 차를 돌려 서울로 돌아가는 길, 호사로웠던 눈과 함께 어느새 차분해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옴마니반메흠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흠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토듯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흠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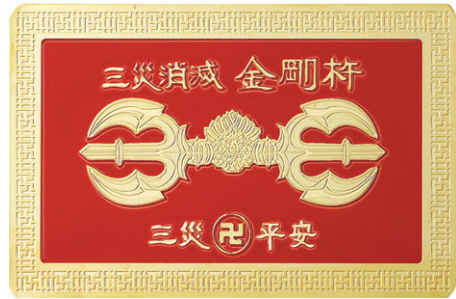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묶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

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불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있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반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반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